

어문연구 제7권 1997년 2월

Selfishness in Aaron's Rod

J. G. Park¹

Abstract

Aaron's Rod is a book about the changing way of D.H.L.'s belief after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And the form it takes is that of a journey : in time, in place and in ideas. Geographically, the novel moves from a small mining community in the English midlands, via London to Italy ; Novara, Milan, and Florence ; its final action takes place in 'the recesses of a soul.'

Here the writer tried to explain the following questions ; Why does Lawrence introduce '*Love-urge and power urge*' so consistently in the novel? What meaning do the '*recesses of a soul*' have in the novel? Most importantly, the writer tried to show what effect L's sacred selfishness has on the relationship of Aaron and Lilly by describing two or three dramatic scenes which illustrate the author's point of view.

1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교수 (영문학 전공)



I.

*Aaron's Rod*는 Lawrence 학도들이 그의 제3기의 작품군에 분류하고 있는 것 중의 최초의 소설로서 제2기의 작품군에 속하는 *The Rainbow*와 *Women's in Love*에서 충분히 설명되거나 실험되지 못하고 있는 남녀관계의 주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탐색해 들어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사색상의 모험'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ee *D.H.L. : Novelist* p. 29-30² and Also see p. 66³)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일보한 '사색상의 모험'을 위하여 이야기속에 나타난 탐색의 과정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글은 그것에 관한 것이다.

II.

알려진 대로 *Aaron's Rod*(이하 A/R)는 독일의 Baden-Baden에서 극히 짧은 기간에 쓰여진 것이다. Lawrence의 소설에는 그 언제나 장소의 정신이 살아 있었듯이 이 소설에도 예외 없이 『잉글랜드』의 중부 지방의 탄광촌으로부터 『런던』, 그리고 이태리의 『노바라』, 『밀란』, 『플로렌스』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소설의 무대로 하고 있다.

표제의 인물인 *Aaron Sission*(이하 *Aaron*)은 Lawrence의 분신이라

2 In his *D. H. Lawrence ; Novelist*, Leavis says : "Lawrence is writing *Aaron's Rod* as a kind of a 'letter' to himself." (p.32) ; "The novels that succeed *Women in Love* are exploratory and experimental. In them Lawrence lives his problems in a tentative and immediately personal way that gives these books a different status as works of art from that of *Women in Love* and *The Rainbow*."(p.29-30)

3. Leavis, p.36. Anthony Beal says : One can tell the Lawrence figure in any of his books by the fact that he is nearly always called by his surname, as Lawrence was in life, e. g. Birkin (*Women in Love*), Lilly (*Aaron's Rod*), Somers (*Kangaroo*), even Mellors(*Lady Chatterley's Lover*). After *Sons and Lovers*, Lawrence stopped being 'Bert', and himself-portraits also stop using Christian names Anthony Beal, *D. H. Lawrence* (London : Boyd, 1961), p. 66.

할 만큼 로렌스 자신의 꾸밈없는 실재-the direct presence of Lawrence himself⁴ -인 *Rawdon Lilly*(이하 *Lilly*)와 친교과정에 나타난 dialogue의 집성이 소설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이 소설의 구조를 부여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Aaron*의 물음에 대해서 *Lilly*가 응답하는 가운데 작중의 *Lawrence*라 할 수 있는 *Aaron*이 의도하는 관심사가 *Lilly*의 입을 통하여 세련되는 정확의 과정이 이야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소설은 남성과 남성 간의 관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러한 관계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힘에 복종하는 태도여야 함을 역설함으로써 힘에 의한 남성 세계의 구축이라는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들어내고 있다.

소설의 심리적 배경이랄 수 있는 이와같은 그의 신조는 동일한 시기에 나온 그의 철학적 essay인 *Fantasia of the Unconscious*⁵의 여러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 there is no fulfillment in Love. Half of our fulfillment comes through love But the central fulfillment, for a man, is that he possess his own soul in strength within him, deep and alone. The deep, rich aloneness, reached and perfected through love.⁶

즉, 사랑에서의 성취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성취 중 반은 사랑을 통해 달성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성취는 그 자신의 내부 깊숙이, 그리고 외로이 존재하는 힘 속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자신의 영혼인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남성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자아에 충실한 자기 고유의 영혼을 소유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본다.

심지어 그는 결혼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혼의 자유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이다.

One has to learn that love is a secondary thing in life.
The first thing is to be a free, proud, single being by oneself : to be oneself free, to let the other be free : to force nothing & not to be forced oneself into anything....
Love isn't all that important : one's own free soul is first.⁷

소설의 시작은 종전 이후 옛과 다름없는, 그러나 많이들 변해버린 Aaron의 가족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결혼한지 12년 된 그는 그가 손수 지은 집에서 느끼는 강한 친근감과 변함없는 쾌적함에 잠겨 있다. 그러나 아내(Lottie)와의 사이에서 이성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대립 때문에 Aaron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표출하는 현명한 이야기나 선량한 의도가 음험하고 흉악한 욕망으로 보이게 하는, 반발하는 심술덩어리로 변해있다. 그러므로 아내의 선의와 사랑에는 드높은 반발심과 거부감이 있을 뿐이다.

“여성이 지니는 신성한 생명출산의 특권”(A/R 169)이나 ‘동정심 넘치는 사랑’⁸(A/R 170)이 남성이 원하는 최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는 인생의 의미와 남자의 깊은 목적의식과 창조적 활동을 더이상 사랑에만 국한해두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Aaron은 3명의 자녀를 거느린 탄광회사의 조합서기이다. 그런 그가 X-mas Eve날 갑자기 집을 나와 버린 것이다

Aaron이 반발하는 것은 진술한 내용의 취지처럼 자신의 내면적 영혼

을 굴복시키고,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아내의 냉혈적 소유욕 때문만은 아니다. Aaron으로 하여금 가정을 떠나도록 부추킨 조그마한 요소에는 아이들의 거동도 일조하고 있다.

어린 딸 Marjory에 비해 노골적으로 강한 소유욕을 들어내고 있는 Millicent가 X-mas에 쓸 장식용 Blue Ball을 난폭하게 깨뜨려 버리고는 잠시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만족스런 표정을 짓는 대목이 있다.

'She wanted to break it' said the father
'No, she didn't! what do you say the for!' said the
mother. (A/R 18)

아이가 저지른 이렇듯 사소한 사건에 반응하는 부부의 대립에서 다음 순간 우리는 Aaron이 취하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결의에 찬 행동을 보게 된다. 그는 『플룻』을 즐겨 연주했다. 구슬이 깨어질 때의 부드러운 파열음을 의식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했을 때 마침 집밖에서는 불협화음의 X-mas carol이 들려오고 있다. 그때 Aaron이 생각한 것은 『플룻』을 연주하면서 이 저녁을 즐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X-mas Eve에 사용할 양초를 사 달라는 아이들의 성화에 밀려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변함없는 쾌적함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처지를 감득하는 것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변해 버렸다- The war over, nothing was changed. Yet everything changed. (A/R 19) -는 이와같은 말은 Aaron이 처한 dilemma를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의 고집하고 대립하는 충돌로 인해 드높아진 가정의 긴장감 때문에 변함없어야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평화(평화)- 『플룻』이 흘러주는 정결한 울동과 『피콜로』의 음율이 찢어 주는 강력하고도 고양된 기

분에 빠져드는 행복감-같은 그런 행복도 이 가정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음을 인식한다. Aaron은 전쟁 이전의 옛 그대로의 집에서 그에게서 유일한 위안의 수단조차도 찾을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한 것이다.

아내와 자식을 두고 집을 떠난 Aaron이 들른 곳은 변두리의 술집 Royal Oak Bar였다. 술집 여주인과의 대화는 가벼운 시련을 털어 버리기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관능적인데다가 정열적이고 한때 Aaron에게는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다. 그러나 Aaron은 오늘저녁 그의 감정을 북돋아 주었던 그녀를 좋아할 기분이 아니다. 정열도 따라주지 않았고 그 어떤 매력도 인간관계를 맺고 싶거나 탐닉하고 싶은 열정에서 스스로 멀어져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술집을 빠져나와 그가 들어선 곳은 Bricknell가문의 Shottle House (이하 Shottle家)였다. 그곳에서 그는 Shottle家의 구성원들이 즐기는 X-mas Eve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이미 모든 물체가 환영으로 보일 만큼 취해 있었다. 가정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는 X-mas Eve를 Shottle家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의 경계선-Aaron Sisson stood on the edge of the light, smilingly staring at the scene. (A/R 46)-에서 국외자로 촛불이 깜박이듯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Shottle家에서 그날 밤을 묵는다. 그리고 X-mas의 날이 밝자 그는 잠적해 버린다.

Aaron이 다시 발견된 곳은 연주회가 있었던 Opera 극장에서였다. 그는 어느새 England의 중부읍인 Beldover을 떠나 London의 Bloomsbury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플룻』 연주자로 변신해 있다. 그는 자기 생활이 『어떤 종류의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변했으며 자기의 생활자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Opera가 끝났을때 일행은 Adelphi에 있는 *Jim*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Aaron*은 *Lilly*로부터 Hamstea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같이하자는 권유를 받고 있다.

*Aaron*이 *Lilly*와 함께하는 만남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다. *Lilly*의 아내인 *Tanny*의 출현이 그것이다. 남성으로서의 *Aaron*에게 *Lilly*가 끼치는 영향 못지 않게 *Aaron*과 *Lottie*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불만을 설명하는데 *Tanny*가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Tanny* 그녀는 매우 비판적인 남성관을 가지고 있다.

-‘Oh, men with their beastly logic, their either - this - or - that stunt, they are an awful bore’-(A/R 65)

그녀는 남자들이 역겨운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식의 고정관념에 얽매어 있어 어린애와 같아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것이다.

*Josephine*도 *Jim*의 아내였던 *Tanny* 못지 않게 *Aaron*과 *Lottie*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일요일의 한가한 저녁 Soho의 거리에서 *Josephine*의 저녁식사 초대에 응한 *Aaron*이 자신의 가문과 *Lottie*가의 내력에 대해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 것이다.

*Aaron*은 아버지가 수직갱을 굴착하는 채탄부-a shaftsinker-로 벌이가 좋았는데 *Aaron*이 4살 때 낙반사고로 운명하시자 어머니는 가게 (shop)를 열어 생계를 이었으며 어머니의 소망은 아이가 자라서 선생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보조교사로서 3년간을 봉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탄광으로 들어가 광부가 된다(See A/R 82). 그러나 *Josephine*은 *Aaron*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내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 다만 *Lottie*가 “선술집 주인의 딸이며 허약



한 여자”라는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Josephine*은 *Aaron*이 분명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가출했으리라는 자기의 생각을 *Aaron*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인지 그녀는 이런 말을 한다.

‘Perhaps you wanted more than your wife could give you’‘Did you never love her’ said *Josephine*. (A/R 83)

사실 *Aaron*은 가출의 변에서 자신의 주위에 약간의 자유로운 공간을 갖고 싶고,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싶으며.....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고 싶다는 말이며..... 사랑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던 느낌이 들어.....사랑하거나 마음을 쓰도록 강요당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혀 둔 바 있었다. (See A/R 83)

그런데도 *Josephine*은 왜 *Aaron*이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그래서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지요?’라고 자신있게 물었던 것이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Josephine*의 이같은 물음에 대한 *Aaron*의 응답이다.

“Perhaps less. She’s made up her mind she loves me, and she’s not going to let me off.’.....‘oh, yes, I shall never love anybody else. But I’m damned if I want to go on being a lover, to her or anybody. (A/R 83)

사실 *Aaron*은 야밤중에 자신을 London의 Square Garden으로 유혹해 내고는 울어보이고, 손을 잡아 달라기도 하며, 키스를 요구하기까지 하는 *Josephine*의 주절댄을 막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즉

「아마 반대일꺼요. 사랑하고 있었어도 절대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을 한다면 상대가 그녀가 됐던 다른 여자가 됐던 애인으로서는 사절입니다」 그렇게 응답하며 그녀의 유혹을 피해갔지만 그러나 Aaron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Lottie도 역시 Aaron을 사랑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강요당하고 싶지 않다' 던 Aaron으로서의 여성이 창조의 중심이며 남성은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Lottie와는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

she, as woman, and particularly as mother, was *the first great source of life and being, and also of culture*. The man was the instrument and the finisher. She was the source and the substance. (A/R 192)

비록 Lottie가 여성이 창조의 중심이며 창조의 근원이라 믿고 있어 남성을 지배하려 한다 해도 Aaron으로서의 아내 Lottie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가 집을 떠나지 않았음은-'I am married to Lottie. And that means I can't be married to another woman'-(A/R 310)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도 분명하다. 이러한 Aaron의 생각은 Sir William이 어떤 이유로 당신이 가족을 버렸느냐는 물음에서 Aaron은 매우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a natural event'-(A/R 176)라고 응답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 때문은 아니었군요, 사랑하기를 그만 두었던 말 인가요 - Not that you loved any other woman?....'you just left off loving?(A/R 176)- 라는 보다 확실한 Sir William의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Aaron이 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의 의도가 더욱

명백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didn't even leave off loving her - not as far as I know. I left her as I shall leave the earth when I die-because it has to be' (A/R 177)

*Aaron*은 그가 사랑하기를 그만둔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온 겁니다-..... (I went away.' 'what from?' 'From it all) - 라고 말한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Sir William*과 *Aaron*의 간결하고도 축약된 다음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성적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유보된 갈등이 *Aaron*과 *Lottie*사이에 가로놓여 있음을 본다.

-'And you couldn't go back?...'yet you can give no reason?' 'Not any reasons that would be any good. It wasn't a question of reasons. It was a question of her and me and what must be. (A/R 176-7)

'되돌아 갈 수 없다는거죠?.....이유가 없잖아요?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어떻다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히 아내와 나 사이의 문제지만 자연스런 사건과 같은 것이에요.' 라는 것이 *Aaron*이 그녀에게 갈 수 없는 이유같지 않으나 그러나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Aaron 주지하고 있는 이른바 그와 그녀 사이에 개제된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가 *Lottie*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국의 하늘 아래에서 *Aaron*은 그가 진정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악마적 의지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대목에서 자문자답하고 있는 내용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See A/R. 191)

Aaron과 Lottie가 처한 오늘의 결과는 서로가 타고난 성격대로 자신들을 단일한 존재로 느끼고 그런 태도를 바탕으로 행동해 온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신혼기가 아니었다. 아이를 들어나 둔 다음에 생긴 알력인 것이다.

Lottie가 당대의 백인사회에서 통념으로 되다시피한 이른바 여자야말로 생명을 담당하는 주체-the life-centrality of women.-이며 생명의 근원-the life source.-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데 반해서 Aaron은 당대의 남성들이 이를 내밀하게 인정하고는 '여자가 갖는 신성한 생명 생산자로서의 우월성-the fact of the sacred life-bearing priority of woman.-을 들어 여성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공인되고 있는 신조-the professed belief(See A/R 192)-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Aaron에게는 천성적으로 여인을 숭배할 수 없으며, 숭배하지 않으려는 정신이 있었다. 그는 여자를 숭배할 수 없었고 그러려는 생각도 없었다. -Born in him was a spirit which could not worship woman ; no, and would not. (A/R 193)-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Lottie는 Aaron이 조금도 자신을 내주려 하지 않으며, 그럴 마음이 (남편)의 맘속에 없다-He never yield himself ; never. (A/R 193)-는 것이 유감이다. 여자에게는 절대로 굽힐 수 없다는 남자로서의 거만함-the arrogance of self-unyielding male. (A/R 193)-이 맘에 차지 않는다. 그것도 그럴것이 그녀는 내심으로 상대 남자를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동정심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려는 본능 -.....It was an instinct in her, that her man must yield to her, so that she should envelop him, yielding, in her all-beneficent love. (A/R 193)-을 가진데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남자는 그녀의 깊은 애정속에 빠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 감정이야말로 지극히 신성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런 그녀의 생각을 조금도 물리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 그녀의 모든 생각은 이 신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여자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자신을 결코 내주려 하지 않는 남편 Aaron이 Lottie로서는 여자에게서 가장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녀의 멋진 정열의 혼, -passional soul- 신성한 성의 정열, -sacred sex passion- 조차도 그로부터 외면 당하는 현실이 커다란 고민이요 공포로 다가온 것이다.

Lottie의 모든 본능과 충동, 그리고 욕망이 단 한번 만이라도 좋으니 그를 소유하고 맡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단 한차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See A/R 195)

Aaron은 논리적으로 깨어있는 정신의 소유자답게 Lottie의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Lottie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규정함으로써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She was a good wife and mother. All her duties she fulfilled. But she was not one to yield. *He* must yield. That was written in eternal letters, on the iron tablet of her will. *He* must yield. (A/R 195.)

요컨대 남편인 (He) Aaron으로서는 아내인(Lottie)가 자신의 기를 꺾어놓겠다는데는 설사 그 요구가 '여자의 의지라는 철판 위에 영구히 사라질 수 없게 새겨진 글자'라 하더라도 결코 그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서 Lottie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편다.

여자이고 아이들의 엄마인 그녀가 굳이 왜 복종을 생각해야 하는가? 생각할 것도 없다. 남자이고, 약한 사람이며, 위선자이고, 반역자이며 불성실한 인간인 그이야말로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 - she the woman, the mother of his children, how should she ever even think

to yield? 'It was unthinkable. He, the man, the weak, the false, the treacherous, the half-hearted, it was he who must yield. (A/R 195)-는 것이다.

이래서는 두사람 사이의 상황이 바뀔 수가 없다. 서로가 찾아내기 힘든 격렬한 대치 속에서 각자의 의지는 회복할 수 없으리만큼 굳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Aaron은 이제 자신에게는 오직 홀로 존재하는 자아가 있을 뿐이며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고독과 독립된 존재- the innermost isolation and singleness of his own soul.....(A/R 197)-를 굳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기까지 한다.

His intrinsic and central aloneness was the very centre of his being. Break this central aloneness, and he broke everything. It was the great temptation, to yield himself : and it was final sacrilege. Anyhow, it was something which, from his profoundest soul, he did not intended to do. (A/R 197)

그는 자신의 굴종이 자신에 대한 결정적 모독이어서 자신의 영혼이 이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막연하지만 그러나 Lottie와 그 자신이 갈등한 근본 원인이 Aaron의 의식속에 스쳐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같은 이유일 수 없다. 왜냐하면 Aaron과 Lottie의 갈등은 의식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가 갈등했던 이유가 막연히 의식 속으로 스쳐갔다고 말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며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그와 그녀의 문제는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다.'-...And between him and her matters were as they were. (A/R 197)-는 말도 그 때문이다.

여기 썸에서 명백해진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할 수 없다는 의지만은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Aaron은 아내와의 사랑에 있어서도 고독과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기 영혼을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어떤 과정이든 그 과정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목적은 완성하는데 있다 - the aim of any process is not the perpetuation of that process, but the completion thereof. (A/R 201-2) - 고 믿는다. 그는 사랑도 불가사의한 것이지만 인간의 영혼이 도달하는 한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사실 그는 요즘 유행하는 관념 - *the idée fixe* of today. (A/R 200)-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Aaron 자신도 그 흐름을 따라 궁극적인 성취를 향해 끝없이 내닫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 자신을 주되 완전히 주어서는 안된다는 다소 모순된 결과를 신비한 사랑의 과정에서 교훈으로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상적인 자기 희생이나 자기 방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자살 행위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단계가 있어 매 단계마다 제각기 진실의 곶이 있는데 거기서 영혼은 순수하고 독립된 모습을 갖고 있으며 순수하고 단일한 존재-simple and generous singleness. (See A/R 201)-가 없으면 사랑도 병이 된다는 것이다.

Aaron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어떤 경계선을 넘어, 자신이 완전하게 단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것은 실로 Lottie와의 기나긴 쟁투 끝에 얻어낸 독립된 자아 *himself*인 것이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고립과 단일화를 통하여 얻어낸 자기 완성, 자기 계발의 경지로 받아들인다. 그래야만 삶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만의 것인 생명의 길-one's own life way alone(A/R 201)-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 one's own life way alone. A/R 201- 사랑도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Aaron은 하늘을 나는

두 마리의 독수리에 비유하여 '홀륭한 사랑의 존재방법'-the splendid love-way-을 이렇게 말했다.

'Two eagles in mid-air, grappling, whirling, coming to their intensification of love-oneness there in mid-air. In mid-air the love consummation. But all the time each lifted on its own wings : each bearing itself on its own wings at every moment of the mid-air love consummation. (A/R 202)

*Aaron*은 이제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떨어져나와 자신의 고립화와 단일화의 신념을 보다 더 심화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는 지금 기차로 Milan을 거쳐 Florence의 Nardini장에 와 있다. *Aaron*에게는 이곳이 전혀 새로운 세계이다. 높이 솟은 원주, 검고 험상궂은 베키오궁-the palazzo vecchio-의 모습 앞에 나체의 하얀 다윗상, 그리고 목직 한 잔등과 강인한 옆구리를 드러내 놓고 있는 Bandinelli(반디넬리)의 조각상, 여성스런 Cellini(첼리니)의 영웅상보다는 검고 거친 모습의 남성적 조각상, 그 확고한 모습이 주는 실제감에서 지금 자신은 본능적으로 육체를 중시하는 Florence의 정수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 Florence의 시뇨리아-Signoria-광장에서 있는 자신이 바로 세계의 중심에 도달해 있다는 생각에 잠겨 있다 : *Aaron*은 여기서 새로운 자신, 새로운 생의 충동이 자기 내부에서 솟아나고 있음을 느낀다. 더구나 Signoria 광장에는 남자들이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여기서 빠뜨리지 말고 포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곳이 남자들의 광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But men! Men! A town of men, in spite of everything.
The one manly quality, undying, acrid fearlessness. The
eternal challenge of the unquenched human soul..... Men
who would neither justify themselves nor apologise for
themselves. Just men. (A/R 254-5)

*Aaron*은 이렇듯 활기찬 남자들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는
마침내 새롭게 홀로 설 수 있는 자아의 출발에 자신감을 갖는다.

그가 여기 *Florence*에 온 것은 *Lilly*를 찾아온 것이다. *Aaron*에게서
*Lilly*는 누구였던가? *Lilly*와 그의 부인 *Tanny*는 「헹퍼셔」의 노동자
용 주택-a labourer's cottage in Hampshire-에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
*Josephine*이나 그의 남편 *Jim*을 알게 된 그런 사이이다. 그런데 *Jim*
은 『아일랜드』계의 성공한 사업가로 *Lilly*를 자신의 구세주로 평가
하리만큼 *Lilly*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Lilly*는 그런 평가에 대해
당혹해 하지만 스스로를 그런 인물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 (See A/R. 91) *Jim*도 *Lilly*도 조금은 *Aaron*의 성격적 단면을 공유
하고 있다.

*Jim*은 자의식이 강한 제멋대로의 『히스테릭』한 'He's self-consc-
ious and selfish and hysterical.....' 사람으로 *Lilly*는 이야기나 희곡을
써서 생계를 꾸려가는 문필가로서 성품이 날카로우며('...He's more
than sharp)-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매사에 몸을 사리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See A/R 86)

그런데 우리는 *Jim*과 *Lilly* 부처와의 만남에서 두 가지 점에서 주목
할 만한 각기 다른 행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조는 곧 *Lilly*
와 *Aaron*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
그것은 *Jim*을 통해서 *Lilly*의 관점이 세련되고 이렇게 세련된 관점이

Aaron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논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Chritianity*의 문제이다 ; *Jim*은 *Christ*를 사랑과 희생의 화신으로 본다. *Jim*은 인생에 있어서도 사랑과 희생은 최고의 것이라는 신념을 펴보이면서 이런 말을 한다.

'I think it is'(=God is love) 'Love and only love,'..... 'I think the greatest joy is sacrificing one's self to love.'.....I mean love-love-love. I sacrifice myself to love. I reckon that's the highest man is capable of.' (A/R 96)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Lilly*의 반응은 냉담한 것이다.

'Depends *what* love, and what sacrifice',.....'If I really believe in an Almighty God, I am willing to sacrifice for Him..... But it's obvious Almighty God isn't mere Love.' (A/R 96)

*Lilly*는 *Christ*를 *Judas*와 동일선상에 놓고 혐오스런 인물로 평가하는데 반하여 *Jim*은 세상이 창조해 낸 최고의 존재-the finest thing. (A/R 97)로 보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두 남자가 느끼는 사랑에 대한 대립되는 감정이다 ;

*Jim*은 사랑만이 생명을 되찾게 해준다-only love brings it(=life) back. (A/R 96) -고 믿고 있다. 그러나 *Lilly*는 *Jim*이 실제로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As a matter of fact, he said 'It's nothing but love and self-sacrifice which makes you feel yourself losing life.' (A/R 99)-고 판단하고 있으며 *Jim*이 홀로서기를 포기하고 여자만을

쫓는 행태를 마땅치 않아한다.

*Lilly*는 *Jim*이 '자기 혼자서 일어서고 독립하여 조용하면서도 초연한 남성'이 돼야한다고 그의 각성을 맹렬히 촉구하고 나선다; *Lilly*은 *Jim*을 빈정대며 자네는 사랑받기를 바라고 사랑받아 보았으면 싫어하거든..... 나이 살이나 먹은 주제에.....아주 역겨워. - *You wanted to be loved, you want to be loved-a man of your years. It's disgusting.* (A/R 102) -라고 말한다. 그런데 *Lilly*의 이 말에 대응하는 *Jim*의 행동양식이다. 격분한 *Jim*이 그만 *Lilly*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것이다 : *Lilly*를 폭력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남성만이 갖는 완력을 동반하는 행동이란 점에서 상징적이다.

*Lilly*의 걱정은 *Jim*의 의지가 이완되어 비틀거리고 길에서 쓰러져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그를 바로 일으켜 세우려는 남성 대 남성으로서의 우정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Tanny*는 남편인 *Lilly*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Lilly*는 '나는 내가 느끼는대로 말하고 자네는 자네가 느끼는대로 행동한다 - 'I say what I feel. You do as you feel. (A/R 104)-고 말함으로써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허둥대는 *Tanny* 앞에서 냉정하지만 그러나 더 호의적으로) 아내보다 *Jim*의 행위를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내의 항의를 일축한 채 오히려 *Jim*을 응대하며 나선다.

홀로서기를 권하고 남성적이기를 충고한 이유 때문에 *Jim*으로부터 강력한 신체적 고통을 받아야했던 *Lilly*, 그는 술이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Covent Garden의 시장통에 쓰러져 있는 *Aaron*을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고는 그를 구해준 장본인이 아닌가? 그때 *Aaron*은 자신은 여자에게 패배했다-I gave in, I gave in to her. (A/R 110)-며 망가진 자신을 크게 후회하고 있을 때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들-*Aaron*과 *Lilly*-은 '부부가 이따금 헤어져 지내는 것도 좋은 일' - 'It's better for married people to be separated

sometimes.' (A/R 111)-이며, '누구나 우선 첫째로 자립해 있어야 해. 남자들은 여자들은'-Everybody ought to stand by themselves, in the first place-men and women as well.' (A/R 112)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때 이미 Aaron은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끈끈한 정이 담긴 말로 Lilly를 탐색해가고 있지 않았던가?

Covent Garden에서 그들이 만났을때부터 그들은 암묵적으로 인간탐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그다지 관련도 없는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 주다니,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겠지-'Not much fun for you, doing this for somebody who is nothing to you' (A/R 113)-하고 Aaron이 말하자 Lilly는 자네와 나 사이에 공감대가 없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네. 실제로 어찌다보니 그렇게 되어 버렸네. 그게 무슨 상관인가?- 'I shouldn't if you were unsympathetic to me'.....'As it is, it's happened so, and so we'll let be.' (A/R 113)-라고 응대하고 있다.

계다가 Lilly는 Aaron을 밤새 간호하면서 아픔을 같이 한 사이가 아닌가? 더구나 의사의 처방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Aaron의 전신에 장뇌유-Camphorated oil-를 발라 문질러 줌으로써 Aaron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 장본인인 것이다. 이성의 사랑을 뛰어넘는 남성 대 남성간의 인간탐색이었던 것이다. Jim과 Lilly의 관계가 폭력이 만들어준 용서를 통해 우정의 실마리를 잡았다면 Lilly와 Aaron의 경우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얻은 남성간의 우의였던 것이다.

Lilly가 Tanny를 떠나 있듯이 Aaron 또한 Lottie와 딸들을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랑받지 않으면 안되는 여자들로부터 해방되어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의 횡포를 넘어 '두 남자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첨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으면서 확고히 결부되어 있는 경우-two men to stick together, without feeling criminal and without

cringing, and without betraying one another. (A/R 124)-를 상호 확
인함으로써 남성의 무기력을 넘어 남성의 용기를 통한 남성 대 남성
의 친교를 타진했던 사이이기도 한 것이다.

그랬던 두 사람이 이제 남성의 도시 'a town of men'에 와 있다.
*Aaron*은 이곳 Florence에서 남자는 여자의 부속물이라고 믿는 아내의
고고(孤高)한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린 채로 새 인생의 탄생을 꿈꾸며
의욕에 차 있다. *Lilly*도 *Tanny*에게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
서 *Aaron*과 다름이 없다. *Lilly*는 *Tanny*의 완강한 저항-건강한 개인
의 권위에 굴복하려 하지않는-이 싫다. *Lilly*, 그는 남자란 아내와 자
식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는 자기의 고고한 자아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누그러뜨릴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남자와의 우정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
았다.

*Aaron*은 지금 남성의 도시, 이 天國-'Nel paradiso'-에서 인생의 가
장 소중한 일이 친구 찾는 일-what is life but a search for a friend?
A search for a friend-that sums it up.-이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경험의 총체 the sums of my whole experience
(A/R 283)-임을 주장하는 『아길』 *Argyle*로부터 남성간의 우정에 대
한 보다 강화된 설교를 듣고 있다.

*Argyle*은 자신이 '완고한 사랑의 사도'임을 자처한다. 그는 자신이 사
랑에 대해 어떤 규범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에서 결코
일탈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가 본인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 그는
자신의 목표가 사랑이며 그것을 위해 인생을 바쳐 왔다고 했다. 게다가
결혼과 여자는 강력히 부정하지만 사랑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지
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사랑에 관한 한 *Aaron*이 내심으로 품고 있는
주장에 접근하고 있다. *Argyle*의 이런 생각은 *Lilly*을 거치는 가운데
보다 세련되고 가다듬어진다 : 즉 여성의 지배를 뛰어넘어 자기 인식

의 혼을 가진 남성으로서 혼자이고자 하고 자신이야말로 자신이고 자신 외에는 자신이 없는 영구히 고독한 존재로서 강요하지 않는 우정과 유대를 갖고자 한다는 것이다. (See A/R 289-290)

Aaron은 Lilly의 주장을 별다른 거부감의 표시없이 호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마음은 벌써 조금씩 Lilly에게로 의지하는 자세로 그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런데 Aaron과 Lilly가 만나고 있는 천국에서도 문제는 있다.

후작 Marchese이 들연 Lilly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Are you not seeking anymore, Lilly?' asked the Marchese. 'Do you seeking nothing?' (A/R 283)

즉 모자라는 무엇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후작의 생각이다. 그는 결혼도 했고 아내와 헤어지지도 않았으며 게다가 남편을 존경하는 훌륭한 부인이 있는 남편들이 세상을 향해 떠벌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욕구 때문에 내몰리고 있는 기분이 들어 내심으로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다른 욕구-we have another need-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째서 이런 일이 사랑 때문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 회의하는 후작의 고뇌는 Lilly를 향해 애처로운 고백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Aaron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뇌이기도 한 것이다.

I love my wife-she is very dear to me. I admire her, I trust her, I believe her. She is to me much more than any woman, more even than my mother. And so, I am very happy. I am very happy, she is very happy, in our love and our marriage. But wait. Nothing has changed-the love has not changed : it is the same. And yet we are *not* happy. No, we are not happy. I know she

is not happy, I know I am not-' (A/R 284)

즉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며 그것이 자신의 dilemma라는 것이 후작의 고백이다: 그는 여인이 마부이고 남자는 말이 되어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남자가 장단을 맞추며 - He is the horse, and she the driver..... They take the initiative, and the man play - (A/R 286-7.) 여자가 발동하는 욕망의 지배하에 봉사자로서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의지이지만 정작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불행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후작이 그런 이유로 불행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후작부인이 남편을 보는 관점은 상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적 갈등은 Aaron과 Lottie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비교하는 가운데 Lilly와 Aaron이 창도하고 있는 고고한 존재로서의 영혼이 담긴 자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남성간의 의기투합이라는 합의절차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야기는 Aaron이 이국(異國)인 이 남성의 세계에 와서 스스로 견뎌내야만 하는 아픈 체험을 잊은 채 후작부인과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든 사건이다. 후작은 후하지는 않으나 작은 키에다 '의무의 최사슬에 꿩꿩 감겨있는 감옥의 간수'로 '작은 악마'라는 기묘한 인물로 규정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사는 집은 '마법의 성'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감정은 답답하고 음침한 분위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Aaron은 지금 후작부인이 지금까지는 날개를 접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 없었던 백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불사조라고 믿어 그들의 만남을 '자신의 까만 지팡이(Aaron's black rod)와 『피렌체』의 붉은 백합(red Florentine lilies 후작부인을 두고 한 말임)-이라 하여 고귀하고 힘찬 정열의 결합으로 믿었고, 그녀에 대한 자신의 욕

망을 '남자의 신격과 신성'-the male godliness, the male godhead. (A/R 301)-으로 운색했다.

그러나 *Aaron*은 자신의 내부에 솟아 올랐던 정복의 욕구가 사라졌을 때 그는 다시 커다란 회한에 빠진다. *Aaron*이 그녀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음을 실감하고는 당혹해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롭게 태어나려는 불사조에게 찬물을 끼얹는 위협의 존재로 등장한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가 무서워진다. 그래서 그녀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그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he felt her deadly. He wanted to be gone. He wanted to get out of her arms... (A/R 306)-는 두려움에서 마침내 남자인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녀를 미워하고 있다- And in his male spirit he felt himself hating her : hating her deeply, damnably. (A/R 306)-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Aaron*은 『아니, 난 그녀를 미워할 생각은 없어. 미움따윈 없어』 - No, won't hate her. I won't hate her. A/R 306-라고 외치고 있으나 마음 속 깊이 *Aaron*은 패배감을 지울 수 없다.

최처럼 강하고 긍지 높은 영광처럼 빛났던 남자의 정열이 제압 당하고 말았을 때 그는 자신속에 들어 있는 생명조직 'vital tissue'(A/R 307)-을 태워버리고 만 기분이 든다. 그는 이때 *Sir William Franks* 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생각하고는 어쩌면 가장 깊은 내면의 진실을 이렇게 쓰고 있다.

'I don't want my Fate or my Providence to treat me well. I don't want kindness or love. I don't believe in harmony and people loving one another. I believe in the fight and in nothing else. I believe in the fight which is in everything. And if it is a question of women, I believe

in the fight of love, even if it blinds me. And if it is a question of the world, I believe in fighting it and in having it hate me, even if it breaks my legs. I want the world to hate me, because I can't bear the thought that it might love me. Of all things love is the most deadly to me, and especially from such a repulsive world as I think this is.....' (A/R 307-8)

*William*경이 운명과 섭리 Fate and Providence-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자비심 깊은 섭리가 어떻게 자네를 대접하는지 알고 싶다'-I shall be very glad to hear from you, and to know how your benevolent Providence-or was yours a Fate-has treated you since we saw you-'(A/R 307)-며 그를 놀려주곤 했던 것이다.

*Aaron*은 이러한 그의 시각에 대하여 운명도 신(의섭리)도 자신을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친절도, 사랑도, 사람들과의 조화도 사랑도 싫다고 했던 것이다. *Aaron*은 지금부터 '투쟁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는 매사에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다 : 하나의 커다란 자각이요 변화인 것이다.

이제 다시 그는 본래의 자기로 돌아왔다. 본래의 자기로 돌아온 그에게서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두개의 사실이 있다. 하나는 마을에는 *Lilly*가 있어 필요하면 그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영혼 깊숙이 여전히 *Lottie*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Aaron*은 지금 사람은 자제하지 않으면 안되며, 자제하려면 혼자 있어야 한다..... one must possess oneself, and be alone in possession of oneself. (A/R 309)-고 충고했던 *Lilly*의 말을 회상하고 있다.

후작부인에게 격심한 원망을 품고 있었던 그가 그녀도 역시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가 있는 그가 후작부인에게 저지른 온당치 못한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Aaron은 『남자는 결혼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편은 연인이 될 수 없다』 -when a man is married, he is not in love. A husband is not a lover.A husband cannot be a lover, and a lover cannot be a husband. And that women will only have lovers now, and never a husband. (A/R 310)-는 Lilly의 말을 생각해 낸 것이다.

Aaron은 '운명같은 존재'인 Lilly의 말을 기억해 내고는 어느편인가하면 자신은 Lottie의 남편-'Well, I am a husband, if I am anything'-으로서 더 이상 연인이 될 수 없다-'and so it is a finished with me as a lover'-는 점을 확인하면서 유감스런 점은, 제가 항상 연인을 원하는 여자의 남편 - 'And to my sorrow I am a husband to a woman who wants a love : always a lover. (A/R 310)-임을 강조함으로써 Aaron은 드디어 신과 희생물(=God and Victim)이 일체가 되는 경지에서도 전혀 다른 존재-not as himself, but as something quite different-로서 영혼은 초연히 고립되어 있는 경지를 감득하게 된 것이다.(See A/R 318-9)

Aaron으로서는 후작부인과의 만남이란 두번 생각할 수 없는 일로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Aaron과 후작부인의 정사는 소설의 흐름에서 볼 때 Aaron 개인에게는 전환기적 사건인 동시에 또 다른 대단원의 준비단계랄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은 "부러진 지팡이 The Broken Rod"에서 더 명백해진다 : 폭발로 인하여 부서진 『플룻』, 그것은 Aaron을 지탱해 준 '영혼의 중심'이었으므로 『플룻』의 손실은, 누구 아닌 Aaron 자신에게 비유할 수 없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다가왔

고 그로 인한 충격은 큰 것이었다. 사실 『플룻』이 없어진 것은 그에게는 중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그것은 영혼의 중심에서 그 무엇인가와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폭탄, 부러진 플룻,..... 모든 것이 끝장이다. It chimed with something in his soul : the bomb, the smashed fleute, the end (A/R 331)-라는 말대로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는 필경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데서 더 상징적이랄 수 있다.

왜냐하면 Aaron은 지금 지팡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기에 더욱 그런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흩어진 '영혼의 중심'이 '다시 자라날 것이며 수초에서 말라죽는 일이 없다'-It will grow again. It's a reed, a water-plant. You can't killing it,'.... (A/R 331)-라는 Lilly의 comment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흩어진 영혼의 중심을 재구축함에 있어서 그의 언명은 Aaron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Aaron이 몇차례의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 : 그는 자신과 Lilly 사이에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운명의 실-at thread of destiny-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Aaron이 규정하고 있는 Lilly는 이상한 녀석-a peculiar bird-으로 반쯤 『베일』에 가려진 자신감-half-veiled surety-에다 조용하면서도 남다른 확신-silent and indifferent assurance-을 가진 사람으로 마치 Aaron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복제한 성품의 소유자다.(See A/R 335-6) 그런데 Aaron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인생을 이 친구와 같이할 생각을 하는 것이다.

Aaron은 생과 사의 선택이 아니라 독단적이기까지 한 Lilly의 지배를 인정하느냐? 세상의 불쾌한 친구 녀석들에게 굴복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마음속의 영웅인 Lilly를 선택함으로써 무너진 자아의 재건

을 위해 남성 대 남성의 우정에 의한 인생의 설계를 꿈꾸고 있다.

그들은 정오(=세계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시각)- the quite acceptance of the world (A/R 339-40)를 모든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맺는 시각으로 생각한다 : 여기서 진정한 관계란 *Aaron*과 *Lilly*의 관계를 상징한 것이리라.

*Aaron*은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크고 강렬한 충동-Love and power-이 있다는 *Lilly*의 열변에 부인도 동의도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Lilly*는 사랑의 충동과 권력의 충동 중에서 후자로 옮겨가고 있다.

We've exhausted our love-urge, for the moment. And yet we try to force it to continue working. So we get inevitably anarchy and murder. It's no good. We've got to accept the power motive, accept it in deep responsibility, do you understand me? It is a great life motive. It was that great dark power-urge which kept Egypt so intensely living for so many centuries. It is a vast dark source of life and strength in us now, waiting either to issue into true action, or to burst into cataclysm. Power-the power-urge. The will-to-power-but not in Nietzsche's sense. Not intellectual power. Not mental power. Not conscious will-power. Not even wisdom. But dark, living, fructifying power.(A/R 345)

그러니까 *Lilly*는 이제사 위대한 생의 동인이 'Power-urge'에서 온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사이한 생의 힘의 근원으로 우리들 내부에 잠재해 있다고 믿는 것이다. *Lilly*는 사랑도 권력 앞에서 상대

에게 자발적인 복종의 태도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ron은 그와 같은 Lilly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 Lilly는 Levison과의 대담에서 열등한 자가 자기의 생명을 우세한 자의 책임 아래 신탁함에 있어서 열등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헌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 'a real committal of the life-issue of inferior beings is the responsibility of superior being'..... 'that this committal of the life-issue of inferior beings to someone higher shall be made voluntarily-a sort of voluntary self-gift of the inferiors'-(A/R 327)

그러나 Aaron은 'Love and power'에 대한 Lilly의 절대적인 의미 부여에 있어서 나는 권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 I don't see power as so very important.' (A/R 341)-고 말하고 있으며 난 사랑의 충동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다-'I haven't got a love-urge' (A/R 341)-고 말하며 이젠 그런 정열 따윈 원치 않으며..... 사양한다 - 'Not any more- not any more (A/R 342)-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Aaron은 '남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여자 또한 자기 자신, 진실로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면 안돼. 어떤 남자의 도구가 되거나 무슨 이론의 구상화여서는 안된다는 거지.' -..... every man must fulfil his own soul, every woman must be herself, herself only, not some man's instrument, or some embodied theory. (A/R 347)-라는 Lilly의 이곳까지의 주장까지는 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둘의 존재 양식은 깊고 미묘한 것이므로 스스로의 존재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이 위대하고 『다이나믹』 한 존재 양식의 하나로서 편입하는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우

리는 사랑해야 하던가, 지배하던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생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남자의 내부에 있는 확고한 권력혼-the positive power soul (A/R 347)-에 복종해야 한다는 *Lilly*의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소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끌어 줄 한 남자의 위대한 혼-men must submit to the greater soul in man -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Lilly*의 주장에 그럼 나는 누구에게 복종해야지- And whom shall I submit to?- 라는 *Aaron*의 물음에 자네의 영혼이 그 의문에 대답을 줄꺼야-Your soul will tell you.'(A/R 347)라는 *Lilly*의 대답으로 끝맺고 있다.

III.

*Aaron's Rod*는 읽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그 눈점이 다를 수 있으며 이미 여러가지 평가가 내려져 있다. *Anthony Beal*⁹은 이 소설이 『다른 작품에서 한 말이 반복되어 있을 뿐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Women in Love*에서 깊이 표현된 사상이 여기서는 오히려 최상적으로 표현』 되어 있으며 『저널리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가 하면 *J.M.Murry*는 이 점에 대해서는 *Aaron's Rod* 야말로 전후 영문학사상 매우 중요한 소설로 꼽는다.

Aaron's R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has happened to English literature since the war. To my mind i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Ulysses*.¹⁰

그러면서 그는 *Lawrence*가 애정의 갈망을 남자에 의해 충족시켜 보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했다-He can only make a forlorn attempt to have his love-desire fulfilled by man¹¹-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으로부

터의 패배 의식에서 자아를 보전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Lawrence*가 남성 동지간의 결합을 촉구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Graham Hough*는 *Aaron's Rod*가 구조적으로 흠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¹². 이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비평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The Rainbow*나 *Women in Love*의 독창성을 고려할 때에 이 소설의 구조가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소설로서 *Lawrence*가 더 이상 소설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비평가가 있을 정도이다.¹³ 그러나 이 소설이 인간관계를 다룸에 있어 활기가 넘치고 일관성이 있으며 남자 대 남자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 *Women in Love*에서보다 진실보한 사상적 이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본다.

Aaron's Rod has the (same sort of) structural lapses, but it does try to work out some of the problems of human relationship, and its vitality and coherence is far greater in consequence. The relation between man and man is explored, if inconclusively, far more fully than in *Women in Love*.¹⁴

그런 의미에서 *Aaron*을 향한 남성의 강력한 영혼에 호소하는 *Lilly*의 주장은 이 소설이 『리더십』의 소설이라는 평가와 맞물려 후속하는 *Kangaroo*, *The Plumed Serpent*의 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적이라 할 것이다.

References

2. F. R. Leavis, *D. H. Lawrence : Novelist*, (London, Chatto and Windus) 1964, pp 29-32.
3. *Ibid*, p. 66.
4. *Ibid*, pp 29-30
5. D. H. Lawrence : *Fantasia of the Unconscious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G.B. Penguin Book), 1986
6. *Ibid*, p 123.
7. Edward Nehls, *D. H. Lawrence, A Composite Biography Vol. I* (Wisconsin, Univ. of Wisconsin Press), 1957, p. 500.
8. Text는 D. H. Lawrence : *Aaron's Rod* (G.B : Penguin Book, 1976) 을 사용하였으며 인용표시는 이하 (A/R page)로만 표시한다.
9. Anthony Beal, *D. H. Lawrence* (London ; Boyd, 1961) pp. 64-65.
10. R. P. Draper, *D. H. Lawrence ;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0), p.177.
11. J. M. Murry, *Son of Woman* (London, Jonathan Cape, 1931) p. 220.
12. Graham Hough, *Dark Sun* (London, Duckworth, 1956) p. 95.
13. John Worthen, *D. H. Lawrence and the Idea of the Novel*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9), p. 118.
14. *Ibid*, 11

어문연구 제7권 1997년 2월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청해 전략

이효웅¹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what kinds of listening strategies Korean EFL students have in the classroom. It also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groups of students in the use of listening strategies. The students' listening strategies were collected through free style essays in the English classes. The study involved 182 male students and 63 female students from five different departments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analysis of data revealed several important things in the study of listening strategies. First, the students in this study were found to use only cognitive strategies, but not to use metacognitive strategies reported in many other studies. Second, the high group of students reported to use a great number of different listening strategies from the low group, even though both of the groups were found to use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same strategies. Third, even within the same group of students, the use of listening strategie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each of the individual students. Fourth, the low group of students were found to use many different listening strategies, but some of them seemed to be ineffective strategies. Fifth, the listening strategies reported in this study were found to be noticeably different from those of ESL studies. Finally, the study suggests some considerations for further research in listening strategies.

1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부교수